

# 도내 교육 현장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처음 스승의 날 맞아... 대부분 학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날을 맞는 15일 전북도에 각급 학교는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과 관련, 학생대표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외의 일체의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사례 제강조 및 위반시 벌칙 유형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해 미리 주의를 당부했다.

또 도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감 명의의 편지를 보내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청렴문화를 강조해 왔고 이제 정착 분위기라는 설명. 지난 2015년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72.7%가 혼자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내용이 뒷받침하기도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처음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일부 학교에선 카네이션도 정중히 사절하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로 전주 풍남중학교 교장 김옥빈은 카네이션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보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전달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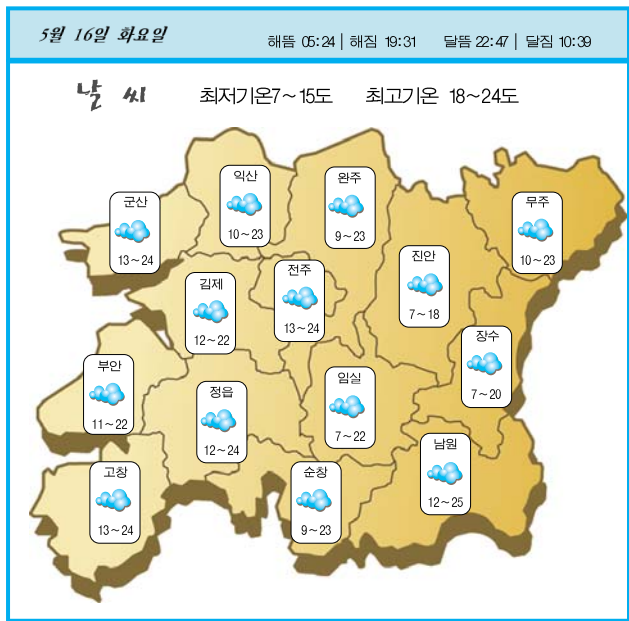
전주 기령당 42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당장 이상철) 제420주년 기념행사가 15일 전주 기령당에서 열렸다.

도 하지 말라 달라고 안내했다며 오전 단축수업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회현중학교는 지난 12일 학생회 주최로 카네이션과 스승의 날 노래를 제창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학부모들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방문을 스스로 자제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원주지역의 경우 학부모회 대표인들이 자체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학교 방문을 해야 할 경우 스승의 날이 끼어있는 주간을 피하기로 했다. 군산지역의 경우 교총 주최로 교육자의 날을 개최하고 15일 오전 10시 월명체육관에서 운동경기를 진행하는 한편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재량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수정 원주 봉사초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처음 스승의 날을 맞아 홀가분하다는 교사들이 많은 것 같다. 아쉬워하는 일부 학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거점국립대 제전 '종합 우승'

### 단체 줄넘기·배구 1위 등 대학 단합된 힘 과시

전국 거점국립대학들의 소통 한마당인 2017 거점국립대학교 제전'에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총장단과 교직원,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일, 12일 이틀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행사와 문화교류 등이 열려 대학 간 소통의 한마당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행사는 어려워지는 대학 현실에 거점국립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전북대가 앞장서 첫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전북대는 올해 대회에서 배구에서 1위, 풋살 3위를 차지하는 등 구기종목에서 선전했고 특히 단체 줄넘기 1위, 2인 3각 계주에서 2위에 오르며 단합된 대학의 힘을 과시했다.

한편 경기에 앞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본관에서는 2017년도 제2차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 회도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구조 개혁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지급률 개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국립대학 실험동물센터 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교육원 실습강좌 운영 개선 등의 협력이 이뤄졌다.

/정해은 기자

# VR·ICT 산업 융합,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본격화

### 전주시·전북도, 1미래형 테카르트(Tech+Art)육성 위해 'K-ICT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 개소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VR(가상현실)콘텐츠와 미디어퍼사드 공연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융합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시와 전북도는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실외행사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서문신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ICT 전북(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전북도 및 전주시가 지난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 K-ICT 지역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ICT산업 전문육성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디지털 사

이니지 융합개발의 스마트미디어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된다.

K-ICT 전북(전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 내 682.5㎡ 규모로 구축했으며, 1층 사니지스튜디오(스마트미디어랩)은 사니지 융합콘텐츠와 미디어퍼사드 제작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또 VR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스템, 사니지 광고 플랫폼 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건물 3층에는 1인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크로마키스튜디오와 입주기업 또는 관련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회의할 수 있는 네트워킹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는 스마트미디어 교육실도 마련됐다.

스마트미디어센터는 향후 전주시역

의 특화로 미디어퍼사드와 사니지 광고분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창업 인큐베이팅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개소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스마트미디어산업 정보공유 및 미래발전전략 논의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와 기업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사니지전토포럼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제3회 전주시사니지전토포럼'도 열렸다.

포럼은 △생태디지털도시 전주의 진화를 주제로 한 5인의 패널토의, △(주)씨티데이즈의 '사니지 인터랙티브 사례와 최신기술 동향 발표 △드론군집공연 기술을 보유한 (주)네온테크의 '융복합 드론 공연 제작사례 발표로

꾸며졌다. 또한 개소식 기념행사로 '미리보는 센터 VR시연'도 진행됐다.

360도 VR촬영은 센터의 최신장비인 VR카메라(Hybrid 5CAM VR)로 지역의 VR제작업체가 직접 촬영·편집했으며,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직접 시연하고 참석자들은 대형 영상화면을 통해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서문신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오늘 개소한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기반으로 향후 디지털사니지 콘텐츠 제작 및 개발지원 등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미래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마중물 동호회, 기독교삼애원 아동들과 민속촌 관람

전북도교육청 마중물 동호회원들이 익산 기독교삼애원 아동들과 한국 민속촌을 관람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마중물 동호회 회원 10여명은 13일 기독교 삼애원 아동과 직원 등 34명과 함께 관광버스를 임대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민속촌을 방문, 각종 체험과 관람활동을 가졌다.

이들 동호회 회원은 지난 2월에도 선덕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무주리조트 눈썰매체험행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마중물 동호회는 복지시설에 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들 동호회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매달 한차례씩 보육원 아동들과 각종 체험활동은 물론 소의계축 전통교체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